

10월의 기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 1. 청명한 하늘 아래 수확이 있는 풍요로운 가을을 허락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결실을 전도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절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 10월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만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살피며 중보하고 사랑을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전하는 이나 받아들이는 모두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감격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3. 주님의 말씀이 저희 입술에서 나오게 하시고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여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4.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이태원,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아브라함의 웃음

아브라함이 앓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창세기 17:17)

웃음은 우리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웃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행복하고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 있고, 또 부끄러움을 당해 웃는 웃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처구니없어서 웃는 웃음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아브라함의 웃음은 바로 어처구니없어 웃었던 웃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웃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날이 되어 이삭이 태어나자 아브라함의 어처구니없어 웃던 웃음을 즐겁고 기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처구니없어 웃던 아브라함의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즉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우리에게 불치의 병이나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실패의 곤경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면 곧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김을 매어주고 비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와 기도로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을 고쳤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바꾼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기쁨의 웃음을 웃도록 합시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October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2023년 해외성회

<런던 축복성회 '영산 조용기 목사님 2주기 추모예배'>



▲ 런던순복음교회를 가득 채운 조용기 목사 2주기 추모예배 전경



▲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영훈 목사



▲ 추모사를 하는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



▲ 조용기 목사 2주기 추모예배에 참석한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선교에 헌신했던 영산 조용기 목사의 2주기 추모예배가 9월 14일(현지시각) DCEM 주관으로 영국 런던 순복음교회에서 열렸다. 2021년 9월 14일 8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조용기 목사는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 있던 우리나라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 서구 중심의 성령 운동을 한국 교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했다.

이날 김용복 목사(런던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추모예배는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가 추모사를 했고 이영훈 목사가 설교를 맡았으며 가족을 대표로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 등이 참석했다.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는 추모사를 통해 “목사님을 모시고 세계를 120바퀴 돌며 70개국 350개 도시에서 성회를 인도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에게 많

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가신 목사님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한 믿음생활을 이어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한평생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았던 조용기 목사를 추모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이영훈 목사는 “1967년 4월 영국 웨스트민스터 센트럴 홀에서 열린 부활절예배가 조용기 목사님의 첫 해외 선교 사역이었다. 이러한 뜻 깊은 자리에서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의 2주기 추모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조용기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선교 사역을 계승하고, 각자의 선교지에서 부흥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순복음의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설교 후에는 양성희·이지영 집사의 클라리넷과 하프 협주를 통한 추모연주가 있었고, 이어서 조용기 목사의 추모영상도 방영됐다. 성도들은 생전 조용기 목사의 영상을 통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며

위로와 은혜를 얻었다.

가족을 대표해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은 “아버지의 첫 해외 선교지였던 영국에서 2주기를 맞아 감회가 새롭다. 아버지에게 영국은 세계로 나가는 창구였다. 이곳 성회 후 유럽과 미국 등에서 수많은 성회를 인도할 수 있었다. 아버지께서 청년시절 꿈을 품고 오셨던 영국 런던이 유럽 복음화의 중심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며 감사를 전했다.

런던에서 열린 2주기 추모예배는 성령 충만의 믿음으로 조용기 목사가 남긴 뜻을 따라 한국 사회에 희망을 안겨주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힘써 기도하는 믿음의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며 힘써 나아가는 세계선교의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해 아래 사는 사람치고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신앙도 더 나아지고 생활도 나아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파멸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원망과 불평을 버려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열두 정탐꾼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결국 불평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2세대들뿐이었습니다.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관건이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30절)

2.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를 당했을 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방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받고 그 능력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사람에게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하나님에게는 해결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3.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사소한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명기 29장 5절을 보면 "주께서 사십 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의 문제도 저주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보면 가정 문

제, 사업 문제, 생활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마음에 힘이 없으면 밖에서 조급한 압력이 가해와도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내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 14:16~18)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어떠한 압력을 받아도 마음속에 성령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 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 낙심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업고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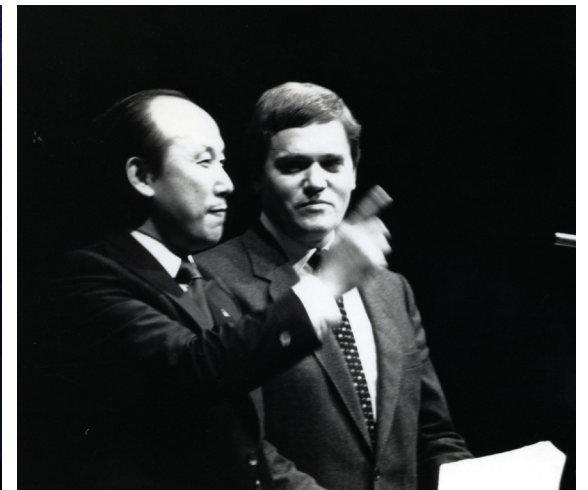
영산의 신학과 목회

'범사에 잘되는 축복은 하나님의 뜻'

마음의 생각,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불퇴전의 믿음 갖고 기도로 나아가자



▲ 1980년도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조용기 목사



▲ 1983년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

4차원의 영적세계에서 바라봄의 법칙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현실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계를 보여주신다. 미래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전환될 수 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많은 별들의 수처럼 번성할 것을 말씀하시며, 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것처럼 많은 자손들을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그리게 하셨다. 이처럼, 바라봄의 법칙은 초시공의 영역에서 현실을 초월하는 꿈의 법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미래의 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사업가들도 미래의 성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향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우리가 현실적인 면만 바라볼 때 앞을 내다보는 시각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꿈과 비전이 있으면 현실의 역경을 극복하고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기독교 영성훈련에서도 바라봄의 법칙은 중요한 영적법칙이다. 기독교 영성가들은 그들의 수련생활에서 마귀와의 영적전쟁을 끝

없이 하였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한다. 만약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의 잡으면 마귀는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의 불행한 모습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불안감을 가지고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마귀가 부정적인 미래를 바라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 영성훈련에서는 이러한 마귀와의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적원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요 1:1) 말씀은 곧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며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실체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다. 수많은 영성훈련 방법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말씀훈련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 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긍정적인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신다.

둘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믿는 것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미래의 사건들을 우리의 현실에 실현할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은 잘되고 범사는 형통하며 육체는 강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셋째,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라고 말씀하고 있다. 꿈은 믿음을 통해서 현재에 구체적으로 존재한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미래가 꿈의 구체적 형태를 빌어 현재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현재 바라보는 것이다. 부정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부정적인 미래가 다가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서 오종복음과 삼중축복을 바라보면 축복의 미래가 다가올 것이다. 4차원의 영성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말하고 믿는 바라봄의 법칙이며 또한 꿈꾸는 법칙이다.